

음압병실·격리시설 등 보강...물 샅 틈 없는 방역망 구축

광주시·전남도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막기 대책 분주

의료인력·시설확보...집단 발생 대비 별도 격리시설 주문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사망자까지 발생,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대구 등을 중심으로 무더기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 격리해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없는 청정상태를 회복했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며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을 분부장으로 한 광주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역 방역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해 음압병실, 격리시설 등 의료시설과 장

비 등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선별진료소에 음압텐트 10개를 설치하는 한편 진단키트 등도 부족함이 없도록 확보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도 이날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과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모든 시·군이 합심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의료인력 및 시설 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전국적으로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태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으로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금주 발생한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해찬·이낙연 '투톱'...민주, 총선 선대위 출범

공천 논란 돌파 첫 과제...위기감 속 승리 다짐

이해찬 "한없이 커다란 간절함·낮은 겸손함"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55일 앞둔 2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과거에 비해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 고발 논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둘러싼 최근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겸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심판론'을 부각하며 미래통합당(통합당) 견제에 나섰다.

이해찬 위원장은 "역사는 민주당에 한없이 커다란 간절함과 한없이 낮은 겸손함

등 2가지를 요구한다"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선대위에 당부했다.

선대위는 이해찬·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투톱' 체제다. 이해찬 위원장은 '중앙선대위'를 맡아 전국 지역선대위와 조직, 선거전략 등을, 이낙연 위원장은 '미래선대위'를 맡아 공약과 미래비전 등을 총괄한다.

공동선대위원장은 11개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이다. 권역별 선대위원장은 이인영(수도권), 김진표(경기남부), 정성호(경기북부), 송영길(인천), 이계호(호남), 박병석(충청), 김영춘(부산), 김부겸(대구·경북), 김두관(경남·울산), 강창일(제주) 의원과 이광재(강원) 전 강원지사 등이다.

중앙선대위는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와 권역별 선대위, 종합상황실(실장 이근형), 법률지원단(단장 이춘석·송기현·소병철·이수진), 코로나대책추진단(단장 전혜숙·전현희), 공보단(단장 박광은) 등으로 구성됐다.

대변인단에는 허윤정 의원, 현근택 전 부대변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경제대변인),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관(안보대변인), 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국제대변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국민소통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는 우선 매주 금요일 오전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이 종료되는 3월 초부터는 매주 2차례(수·금요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3월 중순부터 선거일까지 한달 간은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 회의를 연다. 권역별 현장 선대위와 지역 일정 등도 병행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민주, 비례후보 투표료 결정...1번 장애인·2번 외교안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국민공천심사단과 당 중앙위원회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나눠 공모한 뒤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보 공모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제한경쟁분야는 비례 1번과 2번, 9번과 10번 등 4명이다. 1번은 여성장애인, 2번은 외교·안보, 9번은 취약지역,

10번은 사무직 당직자로 공모한다. 제한 경쟁분야는 공모를 받은 뒤 비례공관위가 심사를 통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중앙위 투표로 결정한다.

이어 "1번과 2번은 '당선 안정권'이라고 판단해 제한경쟁을 하기로 했고 9번과 10번은 '승계 안정권'으로 보고 제한경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중 여성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병주 전 육군대장이 각각 비례 1번과 2번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경쟁분야가 아닌 다른 순번(3~8

번, 11~20번) 후보는 일반경쟁분야로 공모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 경쟁분야는 비례공관위 심사 후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25명 내외의 후보를 확정하고, 중앙위에서 최종 후보 20명과 비례 순번을 결정한다.

국민공천심사단은 70만여명의 권리당원과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일반 국민으로 꾸려진다. 국민공천심사단의 비례 후보 투표는 다음 달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한 사람당 남성 2명, 여성 2명 등 4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이 선물한 포스터로 화제를 모은 '논가리'를 착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제작진과 배우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초청 오찬

김정숙 여사표 '대파 짜파구리' 메뉴 깜짝 등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영화감독을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제작진·출연진과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특별히 제작한 '대파 짜파구리'가 포함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도, 새로운 오스카 역사를 쓴 것도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 비영어권 영화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없게 해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7분여간 막힘 없이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봉 감독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씨나 모두 '한 스파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문화,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언급을 거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 분량"이라고 부연했다.

오찬 메뉴에 '짜파구리'가 등장하자 김 여사는 "(오찬과 관련해) 저도 계획이 있었다"며 "어제 오후 내내 조합을 한 짜파구리"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돼 (엣그제) 재

래시장에 가서 상인들도 위할 겸 작정을 하고 대파를 샀다"면서 "동행한 이연복 셰프에게 '짜파구리'와 대파를 어떻게 접목할지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소고기 안심을 넣으면 너무 느끼할 것 같아 돼지고기 목심을 썼다"며 "저의 계획은 대파였다. 이게 '대파 짜파구리'라고 부연했다.

봉 감독이 "짜파구리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맛있다"고 하자 김 여사는 "여러분 덕에 대파 소비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생충' 제작진 및 촬영진과 사진을 찍은 후 본관에서 녹지까지 산책한 뒤 이들을 배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